

패션비즈니스 제25권 1호

ISSN 1229-3350(Print)
ISSN 2288-1867(Online)

J. fash. bus. Vol. 25,
No. 1:96-107, Feb. 2021
[https://doi.org/
10.12940/jfb.2021.25.1.96](https://doi.org/10.12940/jfb.2021.25.1.96)

Corresponding author

Keejung Barng
Tel : +82-31-8029-7571
Fax : +82-5004-497-7755
E-mail : wp2848@gmail.com

고문헌 속 언어를 통한 한국의 고전화장 시각화 방안 연구

방기정[†]

(주)굿게이트

A Study on the Visualization of Classic Makeup in Korea through the Language in Old Documents

Kee-Jung Barng[†]

Research Institute of Good Gate, Inc., Korea

Keywords

visual language,
classical make-up,
Korean makeup,
visualization,
historical painting
시각언어, 고전화장, 한국화장,
시각화, 기록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how to visualize classic makeup through Korean visual language in old literature. It provides consumers with creativity to understand and communicate and proposes a new conceptual visualization model. The research method was carried out by drawing from old literature studies, previous reproduction records, examples, and international standard diagram text language expression. First, the visualization work expressed in visual language in old literature was an objective and efficient method of information delivery as a characteristic of information design. Second, visual language expressed in old documents could be divided into makeup materials and actions. Also, the diagrams were appropriate for visualizing materials and materials for storytelling. Third, in the visualization of Korean classic makeup in old literature, images were more appropriate than diagrams in the case of action. The researcher proposed a method of visualizing historical knowledge that went one step beyond the existing simple event timing method. Timeline, correlation diagram, image, and text were combined in various ways to find the most effective historical knowledge visualization method. The representation of Korean classic makeup goes beyond the meaning of language or text and is the cultural content of re-creation, which requires systematic globalization.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RF-2020R1H1A2004450)

I.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화장은 얼굴에 화장품을 사용하여 곱게 꾸미는 행위를 말하며, 신체를 가꾸기 위한 수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본능은 단순한 개념을 넘어 의복과 마찬가지로 생활양식의 표현이자 그가 속한 사회를 표출하는 행동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Barnig, 2019). 한국인들의 화장 문화가 한류의 열풍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면서 화장품 역시 세계화를 통해 각 나라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화 전략으로 성분 및 효능을 한국의 전통화장 문화에서 찾고자 하며, 친환경의 트렌드와 부합되어 재조명 되고 있다(Woo, Lee, & Chun, 2013).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형태가 없는 무형의 문화유산은 사람을 통해 전승되며 보존의 중요성이 주요해졌으나 온전히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여 보존할 수는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기록에 담아 보존하고 전승해야 한다. 문화원형을 디지털화하고 공연 화하여 세계적으로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보호 의지가 높아지고 있으며 복합적인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고 있다(Barnig, 2019). 우리나라의 기록 문화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독창성과 정교함, 우수한 보존상태 등으로 명성이 높지만, 대부분 조선시대로 이 시기에 기록문화가 갑자기 높은 수준의 완성된 것으로 보기에는 역사 발전과정의 단절감이 있다(Lee, 2017).

한국의 미용문화와 기록은 우리 고유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우리나라의 화장 문화는 일부 유적과 유물 그리고 문헌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화장 문화가 여성위주의 문화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자료문화가 부족하여 현존하는 자료가 많지는 않다(Barnig, 2019). 조선시대 『규합총서』(閨閣叢書)는 실용적인 목적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한국 백과사전으로 볼 수 있으며,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다. 고문헌 속 시각언어를 통해 표현된 문화적 자료 중에서 연구 사례로 선정한 『규합총서』 봉임측 편은 조선시대의 다양한 생활 및 내용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어 인포그래픽의 본질, 조형적 특성에 중점을 두었다(Lee, 2017). 재생산된 수많은 디지털 기술의 정보로 지식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의미 있는 '지식' 내용을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정리된 제대로 된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Barnig, 2019).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고문헌 속에 보여 지는 한국의 고전화장에 대한

지식을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각화 방안을 알아보고 새로운 개념의 상상할 수 있는 시각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한국의 고문헌 고찰, 선행연구 및 재현기록, 시각화 사례 및 텍스트를 국제표준 다이어그램을 통한 언어표현 도식화 방법으로 구성하여 진행 하였다. 한국 전통화장에 대한 고문헌 자료는 조선시대의 『규합총서』(閨閣叢書)를 중심으로 언어 표현을 응용하고 참고하여 도식화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시각화를 위한 화장의 범위는 피부, 색조, 눈썹화장을 중심으로 원문제시 후 고전화장 관련 학자의 재현 기록과 타임라인, 상관 다이어그램, 이미지, 텍스트의 가장 효과적인 4가지의 디자인 시각화 연구방식을 적용한다. 텍스트 위주 고문헌에서 사용한 언어를 Bac(2015)의 전통음식 레시피 시각화 방안에서 제시한 국제 표준 다이어그램 ISO의 표현을 근거로 한국의 고전화장법 및 화장품 제조를 응용한 것을 도식화 하고자 한다. 한국 고전화장에 대한 의미에 비해 고문헌에 표현되어 있는 전체 내용은 현대인들이 접하기 매우 어렵고, 또한 이해하기 힘든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역사 지식의 효과적인 시각화

1. 전달 정보의 기록화

기록화는 시각 콘텐츠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당시의 적절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내용을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각화 한다. 그 원류로는 블랑샤르 시간 정보기록(BC 30,000)이나 라스코 동굴벽화(BC 22,000), 메소포타미아 암각문자(BC 3,000) 등 당시 표현 도구인 암각화나, 벽화, 점토판으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양피지(BC 190), 종이를 거쳐 금속활자에 이르렀으며 현재 디지털 미디어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Lee, 2017). 그 중에 삼국시대에의 기록화는 정보의 전달과 보존이라는 사용 목적이 분명한 그림으로 목적성을 띤 그림 제작이 우선이었다. 국제정보디자인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Information)는 인포그래픽이 필요에 의해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환경과 정보콘텐츠를 기획하고 형상화하는 것으로 개념의 정의를 내린다. 기록화는 그 시대의 생활환경을 사진과 영상처럼 왜곡하지 않고 대상을 묘사하

었다는 점에서는 정보의 기록이라 볼 수 있다. 인포그래픽 관점에서 재해석 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록유산으로 조선시대 의궤는 종이로 된 책자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기록화를 바탕으로 재현할 수 있을 만큼의 사실적인 다량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Ahn, 2007). 시각화는 어떤 요소들을 단순한 기계적인 기록이 아닌, 눈에 들어오는 구조적인 패턴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다(Jung, 2012).

2. 한국의 정보 시각화

고분 벽화는 그림 표현의 공간으로 선사시대 암각화에서 고려시대 고분벽화, 공예화를 거쳐 천(비단), 종이로 보편화 되기까지 미디어의 발전과정에서 과도기 역할을 하고 있다. 고구려는 유산이 대부분 무덤의 벽화로 고분벽화의 묘주를 중심으로 당시의 생활상이나 구역, 형사 등 기록과 사실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먹과 채색을 써서 본격적인 그림을 제작하고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그림을 제작하는 전문 화공이 있었으며, 정보를 시각화 하는 기록화에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도화원에 소속된 화공(채공)들이 제작했던 나라에서 요구한 실용적인 목적의 그림을 제작하였다. 조선시대 도화서는 우리나라 기록 문화의 수준을 전문적인 디자인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의궤도 지도 계획도, 어진 등의 기록화를 제작하였다(Lee, 2017). 그림으로 남겨진 자료도 문헌자료와 마찬가지로 기록성과 사료성을 가지고, 그림은 거짓 없는 사실적 표현 속에 다양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다(Ahn, 2007). 최근 한류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K-Beauty에 대한 기술성과 세계화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 고전화장에 대한 소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 관련 대기업이나 또는 연구되는 고문헌에는 궁중 여인 또는 사대부를 중심으로 보여지는 한국의 고전화장과 화장품이 일반적이라는 생각할 수 있다는 점으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평상시 일상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풍습과는 괴리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화장 방법과 화장품을 궁중과 사대부 그리고 특수계층에서 사용하는 것만 아니라 민간에서 전해오는 방법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후대를 위한 현대인의 의미 있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Barn, 2018a).

III. 인포그래픽(Information)의 시각적 표현

1. 인포그래픽(Information)의 개념과 정의

인포그래픽은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는 정보(information)와 이를 전달하는 그래픽(Graphic)의 합성어로 그림, 사진 등 지식의 시각적 표현이며, 정보를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자료와 지식과는 구별이 된다. 시각 요소는 컬러(color), 이미지(image), 타입(type) 등으로 분류하고, 이미지는 도형, 그림, 사진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요소는 형태, 전달 목적, 데이터의 유형, 형식 그리고 매체에 따라 다르게 정보 이용자에게 적용되어 디자인 된다. 사용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과 의미를 그래픽으로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전달하는 방법은 글로 전달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전달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진다(Lee & Jang, 2015). 사람들은 오감에서 시·지각은 매우 뛰어난 감각기관으로 시각적 감각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래픽은 언어가 달라도 시각적 표현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시각화하여 만든 그래픽 메시지는 중요한 학습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광범위한 정보를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만든 것을 말하며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흥미 유발로 효과적인 정보습득을 유도하고 있다. 인포그래픽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빠르고 흥미를 줄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다(Min, 2014). 역사 지식을 시각화 하는데 있어서 시각화 형식의 효과적인 방법은 ‘조직도(상관 다이어그램)’ 나 ‘타임라인’ 형식 중심으로 제시된다. 한 채널은 수학적 심벌, 추상적인 그림, 상상 이미지, 언어적인 문자 등 다양한 시각 시스템을 통해 이미지화(imagens)를 하고, 인간의 자연적인 언어, 소리, 음악 등 청각적인 다른 채널의 시스템을 통한 언어화(Logogens)를 한다(Shin, 2011). 즉 중요하고 선명한 기억은 새로운 정보의 시각화 과정을 위해서 동시에 생성될 수 있도록 이미지화와 언어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Lee & Chang, 2012).

2. 인포그래픽의 조형적 특성

1) 고유표현 기법-단순성, 명확성

인포그래픽의 조형적 특성은 수용자의 시·지각, 인지, 감정 반응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는 즉시 정보 내용을 바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Lee, 2017). 고분의 벽화에 그려진 대상을 조형적으로 단순하게 그려 정보의 시각적 용이성을 나타내기에는 ‘벽’이라고 하는 특수한 미디어로 인해 대상을 섬세하게 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수의

벽화에 적용된 선묘법은 고구려 고유의 선화기법이자 우리 민족 고유의 채색기법으로 선으로 대상의 감정과 형태 그리고 다양한 움직임의 나타낸다. 선이 스며든 고분에는 인물, 기구, 동물 등 단순한 형태로 채도가 높고 선명한 색으로 대상의 특징을 강조하여 자연적으로 명시성이 높아졌다(Barn, 2018b).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대규모의 변화 경우 거리감, 공간감, 크기, 배열 등 정보량이 상당하다. 그래서 인물의 표정과 생김새에 개성을 부여하지 것은 제작과정으로 즉각적으로 쉽게 지각하는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정형화와 단순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으나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는 인포그래픽의 본질을 우선하였다(Yi, 2005). 우리나라 그림은 초기부터 실용적인 목적인 큰 맥락에서 전개가 되었고, 대표적인 유산이 기록화임을 알 수 있다. 인포그래픽 관점에서 기록화는 문헌으로 추정할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극히 일부이며 조형적 분석과 체계적 연구 역시 거의 시도되지 않았으며, 고려시대에 와서 그림 제작은 다양하게 발전하였다(Lee, 2017).

2) 시각적 단위요소

Jacobson(1999/2002)은 정보디자인에서 단위 요소는 보편적으로 수량적 관계를 시각화하는 체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하였다(Jacobson, 1999/2002). 기록화로서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점은 바로 단위요소에 의한 표현의 경제성이다. 두 개 이상의 설정된 단위는 정량적인 관계 파악이 쉽고, 모티브나 색으로 인한 상대적 비교가 나타난다. 이러한 묶여진 단위들은 복잡한 요소의 단순한 개체 덩어리로 인식되어 계슈탈트의 그루 핑의 범칙처럼 명확하고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Ahn, 2007). 이러한 설정에 의해 단위 설정으로 인한 노력이 많이 드는 정보 파악 과정을 정량적이고 획기적으로 단축해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Lee, 2017). 이와 같은 특성은 조선시대에도 볼 수 가 있는데, 단순화한 인물을 그룹을 지어 나열하고 동일 의복 및 도구의 인물과 역할을 하여 역할도 지칭한 도구가 다르면 차이가 날 수 있다. 등장인물의 형태와 크기가 유사하여 빠른 시간에 등장한 인물 역할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직관적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차이와 유사성의 적절한 조합, 즉 단위요소에 의한 정보의 시각화와 효율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3) 배열을 통한 객관적 정보전달

고구려 고분벽화 행렬도에 나타난 단순하면서도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등장인물과 직관적인 소재의 배열을 감안해서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객관적 정보에 의해 사

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Ahn, 2007). 이 처럼 일정하고 나란히 진열된 단순하고 평면적인 배치가 아니라 중첩된 인물과 소재, 도구들이 보여 진다. 정보의 내용이 빠짐없이 전하는 사실성보다는 행사가 진행되는 현장감, 인물의 감정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려는 면이 엿보인다. 초기 한국의 인포그래픽으로 높은 수준의 완성도 있는 조선시대 기록화는 정보의 배열과 소재의 조형성이 맥락을 유지하고, 단순화된 선 형태와 규칙적인 단위요소, 평면적인 나열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벽화, 종이 등 형태에 따른 미디어와 매체 환경의 차이가 있으며, 무덤과 같은 폐쇄된 공간의 단일 작품 복제에 의한 공유와 조형적 완성도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부터 전문적인 화공을 통해 정보를 기록하는 목적의 기록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기록화의 제작이 이어졌다(Ahn, 2007).

3. 한국미용과 고문헌의 구성

조선후기 빙허각(憑虛閣) 이씨(李氏)에 의해서 집필된 『규합총서』(閨閣叢書)(순조 9년, 1809)는 가정살림에 관한 내용의 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장 전체를 한글로 작성해서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되는 2008년 2월 보진재 출판의 정양완 역주(譯註)를 주 분석대상으로 한다. 규합은 규방과 같은 뜻, 여자가 머무는 거처나 여자 의미. 의·식·주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담은 생활 경제서로 저자가 서문에 ‘진실로 일용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고, 부녀자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듯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고 현명한 생활의 슬기를 적어 모은 것이다. 『규합총서』에는 여성의 화장도구, 화장 방법, 다양한 머리 모양 등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주사의(酒食義)', '봉임칙(縫針則)', '산가락(山家樂)', '청낭결(靑囊訣)', '술수략(術數略)' 등 5권으로 '봉임칙'에는 옷 재단, 봉제, 수놓기, 염색법, 방직, 빨래, 문방사구, 온갖 그릇 및 등간 관리, 그림, 향 만들기, 양잠, 보물, 돈의 계보, 격물, 방구들 놓는 방법, 열녀, 머리 모양, 화장법 등 조선시대 여성들의 미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볼 수 있게 제시되었다(Barn, 2018b). 『규합총서』에 기록된 기초 피부 관리 비법은 단순히 미용학적 접근을 넘어서 약리학적 부분까지 접근하고 있어 이용후생의 실학정신이 깊이 반영되었다. 본초학과 의서에서 참조한 고증학적 형태의 재료와 처방은 다른 문헌에는 전혀 없는 일부분 지방도 있어 직접 체험하고 임상을 거친 후 검증된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Woo et al., 2013). 우리 조상들의 생활을 기술해 놓은 매우 귀중한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문헌에 대한

이해와 실용화를 위한 전문적인 노력 가운데, 시각언어를 통한 디자인적 이해를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다양한 방법에 의한 재현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고문헌의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를 현대인들과 보다 쉽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 고전 화장 고문헌에 보여 지는 어려운 내용과 용어들의 한국 고전화장 방법과 화장품 제조법을 시각언어 측면에서 보존하고자 한다. 또한 고문헌은 현대적 대중화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접하고 '시각화'라는 측면에서 시도함으로써 쉽게 다가설 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화를 통한 많은 공감과 공유를 할 수 있다.

IV. 고문헌 속 한국미용의 시각화

1. 고문헌 속 한국미용의 시각화

본 시각화 적용 예시는 『규합총서』를 고어로 된 원문을 제시하고 학자들의 현대어 연구 해설과 디자이너의 시각화 제시 순으로 정리하였고, 일반인 들이 생소한 고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이해하고 화장방법과 화장품 제조방법을 알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대인들이 이

러한 원문의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적 고전화장의 그래픽 원형을 도출하고 국어학자들에 의해 해설된 현대어를 통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문화의지, 종교, 문화예술의 개념을 아우르는 '고전화장'을 소재로 시각화 한다는 시도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고전화장 방법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이해하기 쉽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시각화 기술로 다이어그램(diagram)은 그래프(graph)와 다이어그램(diagram)의 용어를 혼용하기도 하며, 2차원 표면에 그래픽적인 투사과정을 거쳐 3차원 공간에 시각화되는 정보를 조율, 묘사, 상징화 하는 2차원 기하학 모델(two-dimensional geometric model)이다(wikipedia.org). 가장 효과적인 디자인 시각화 제안의 4가지 연구 방식은 타임라인, 상관 다이어그램, 이미지, 텍스트이다(Lee & Chang, 2012).

이 연구를 통해 디자이너와 비 디자이너 모두가 한국적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우리 정체성을 디자인에 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 제시 후 언어학자의 연구해설 제시, 고전화장 관련 학자의 재현기록, 디자인 시각화 제안의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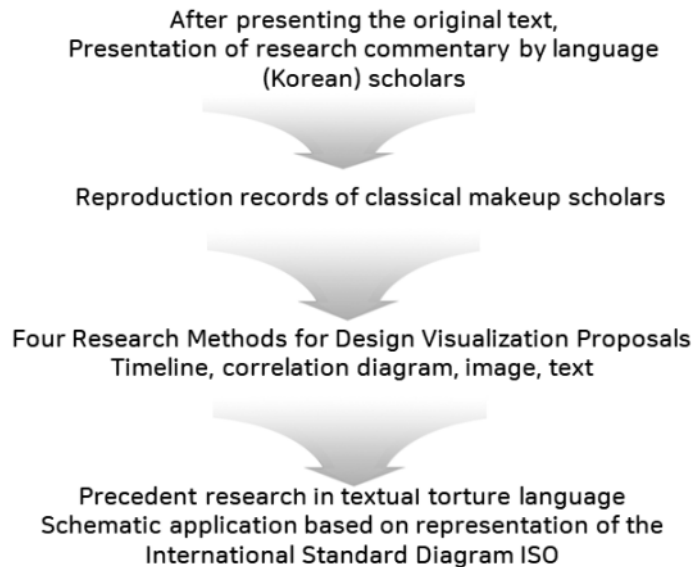


Figure 1. Study Method and Progress Model
(by author)

Table 1. Makeup Symbols for Visualization

washing	grind	crush	filtering	pour	push	fill
eject	shape the mold	flip	painting	drawing	apply	remove moisture
beat	mix	knead	soak	steam	patting	ripen
drying						

(all pictures drawn by auth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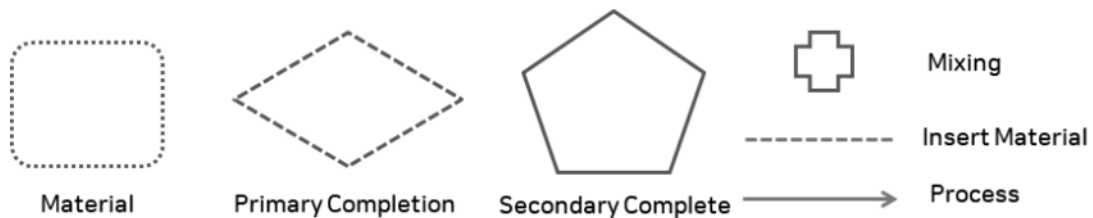


Figure 2. Cosmetic Elements of Secondary Behavior
(by author)

텍스트 위주 고문헌에서 사용한 언어를 선행연구(Bae, 2015)의 전통음식 조리법 시각화 방안에서 제시한 국제 표준화기구 ISO의 표현을 근거로 한국의 고전화장법 및 화장품 제조를 응용한 것을 도식화 하고자 한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위주 고문헌 언어를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ISO 표현을 응용한 것을 도식화 하여 2차적인 화장요소들(Figure 2) 별도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 미용 방법의 시각화

조선후기 여성들의 화장은 피부에는 분을 일반적으로 발랐으며, 눈썹은 그대로 그리되 길게 아미 장으로 그리고, 볼에는 연지를 발라서 혈색이 좋아보이도록 하였다. 입술화장은 입술을 붉은 색으로 작게 보이도록 그려서 오늘의 화장 문화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규합총서에서 봉임직 편의 고어로 된 원문 제시, 학자들의 연구해설과 디자이너의 시각화

제시 정리, 연구 사례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일련의 스토리를 가지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정보전달 측면의 흐름 변화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정보의 시각화는 복잡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거시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소비자가 보다 심화되어 흥미 있는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게 한다. 정보의 시각화 과정에서 구조분석, 특징분석, 그리고 패턴과 트렌드 분석, 이형분석의 상관관계 파악 중심 제작한다. 다양한 미디어와 문자, 애니메이션, 조명, 문자, 그래픽, 내비게이션(Navigation)은 정보 시각화의 표현요소로 사용된다(Woo et al., 2013). 『여용국전』(女容國傳)에서는 피부, 눈썹, 볼, 입술관련 화장내용은 조선 후기 당시 여성들의 화장 문화를 순서대로 묘사한 소설로, 조선시대 화장의 주요 초점이 흰 피부와 혈색이 좋아 보이는 붉은 볼 화장과 입술 화장 기법도 오늘의 틴트 사용방법과 유사하였다(Chun & Woo, 2012).

1) 원문사례 1 - 피부화장

Figure 3은 『규합총서』에 기록된 원문이다. 이는 선빈, 장미, 효하장 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 궁인.. 교소가 금의 사리로서 자분불면(紫粉拂面)을 만들고 상의는 능히 가무히고, 아래는 침선이 승하야 타인 제 작은 데 넘지 아니”호왈 침신이오, 슈경병의 촉상하야 늦치 불고 안개긋하니 궁인들이 연지를 브르고 요무장이라 하더라..”(Lee, 1809, p.256)

현대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학자들은 이를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규합총서』에는 위문제 궁녀인 교소가 금의사리로 자분을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분, 연지를 바른 효하장에 대한 고증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Chun and Woo(2012)에 의하면 자분은 『중국의관복식대사전』에 자분은 여인들의 얼굴에 바르는 분으로서, 쌀가루 또는 호분에 치자나무의 꽃과 섞어서 만든 담자색의 분으로, 남북조시기의 위(魏)나라 궁녀인 단교소가 만들었다고 한다. 진(晉)의 최범의 『고금주』 하권에 ‘위문제의 궁인 .. 교소가 금의와 사리를 싣고 자분을 얼굴에 뿌렸다고 한다...고 하였다.

자분의 제조방법은 남북조시기 북위(北魏) 가사협(賈思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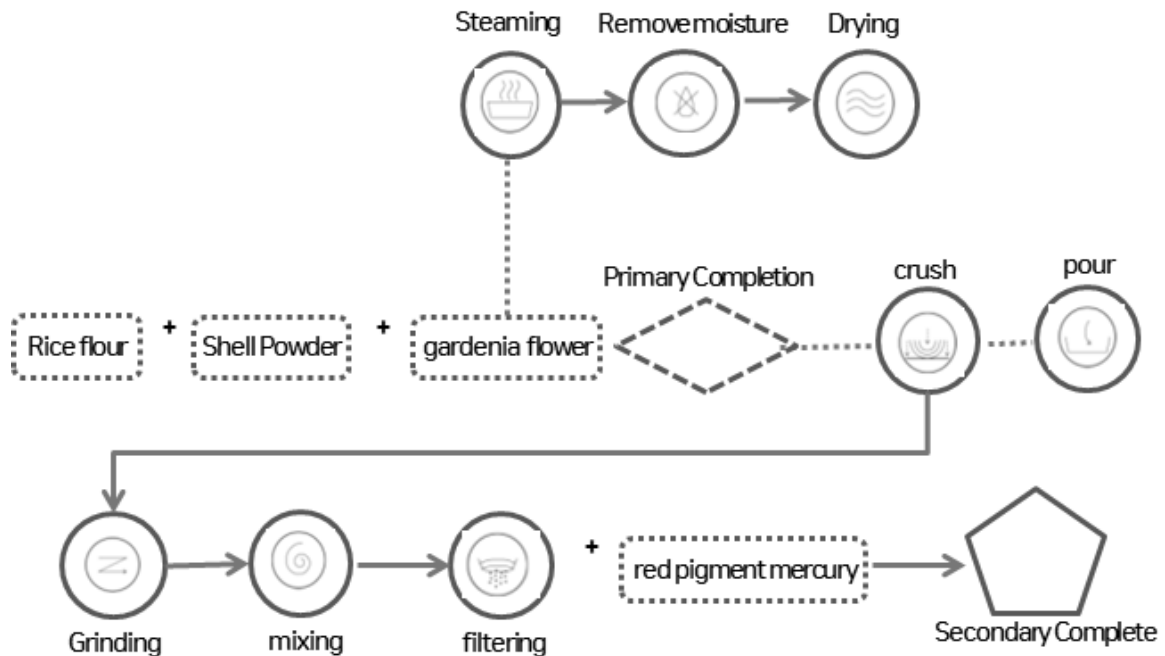


Figure 3. How to Make Red Powder (by author)

繆啓愉 繆桂龍, 2009)의 『제민요술』 권5에 미분과 호분을 섞어 만드는 방법과 규자(葵子, 집시꽃)를 찌서 익힌 후 즙을 짜서 분과 합한 후別に 말려서 만든다고 한다. 당 이후 은주(銀朱)를 넣은 자분이 만들어졌고(周汎; 高春明, 1997), 명대 송응성의 『천공개물』 권16에는 자분은 진홍색으로 호분에 은주를 섞어서 만든 것이 고급이고, 홍화로 만든 것은 거칠고 나쁘다고 하였다(Song & Han, 2020). 이 부분은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하겠지만, 현대에 제조되고 있는 화장품 기술과 텍스트와 이미지로 시도하고 있다. 그 중 Barng(2019)은 YTN사이언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시각화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재현한 색분과 피부 화장 방법은 이미지(사진)을 통해 시각화하는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지금까지 인쇄 및 방송매체를 위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무선통신 모바일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수요가 많아진 시대에 텍스트 위주의 정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직관적이고 정보의 효율적 전달이라는 측면에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세계화를 위한 쉽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충분히 걱정하고 효율적인 형태로 시각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인포그래픽으로 플로우(Flow) 형태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였다.

2) 원문사례 2 - 색조화장

Figure 4, 5는 『규합총서』에 호화장, 매화장, 단지 편에 기록된 원문이다. 이는 연지를 통한 색조화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당말의 입스웁 연지 직는 품이 석뉴교 대홍춘 쇼홍춘 눈오향 반변교 만금홍 성단심 노주야 니가원 텅궁교 낙아은 담홍심 성 위 쇼주농격 쌍당미화로러라.”(Lee, 1809, p.256)

“시진왈, 복후(伏候)의 중화고금주(中華古今注)에 ‘연지(燕脂)는 은나라 주왕(紂王)대부터 홍랍화(紅藍花)즙(汁)을 추출해서 얼굴을 장식했는데, 연(燕)지역에서 생산되는 까닭에 연지(燕脂)라 하였고, 흥노에서는 처를 알씨(闕氏)라고 하였으며, 연지(燕脂)와 음이 같다.”(Lee, 1596, p.109)

“...매화장은 송 슈양공주 함초전 난간의 누엇다가 매화 나라 익상의 떨어지거날 드미어 니마의 단사를 직는 단장을 만들고 화활 매화장이라 하니, 일노초자 곤지 직는법이 나니라.”(Lee, 1809, p.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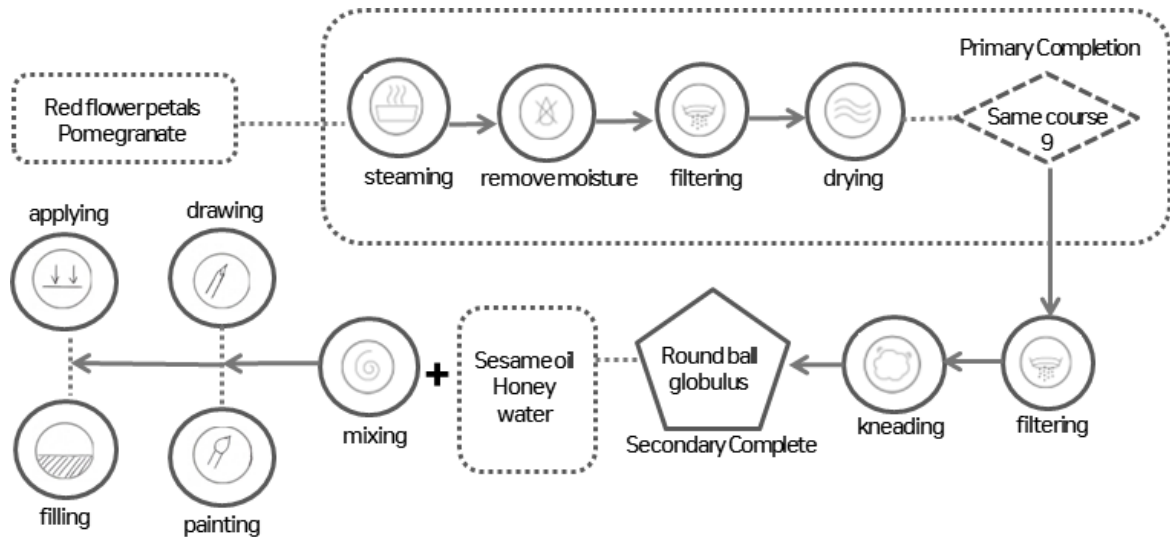


Figure 4. How to Color Make-up (by author)

“...오쥬 손화가 룡희 등부인을 매양 꺾히 두고 슈정여의를 희롱하다가 그릇부인의 니마를 상해와 피분 분하거늘 의자를 뵈니 왈, 흰 산달의 기름의 옥과 호박으로 석거 고를 만나라 바르니 상흔이 업사되 호박이 과히 드러 나온 후는 불근점이 고은 거슬 도아 좋이 더으니모든 미인이 다 토아 효측하야 단사직고 호왈 단지라 하더라.”(Lee, 1809, p.267)

『규합총서』 본문에서는 낮이 붉고 안개같이 연지를 바른 것을 요무장 또는 효하장이라고 하였는데, 얼굴 양 볼에 연지를 바르는 면부의 피부 화장으로 연지를 먼저 바르고 난 다음 백분을 바르고, 아침노을이 퍼진 것과 같이 그 색채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명칭이다. 『중국의관복식대사전』에는 얼굴에 장식하는 홍색의 안료는 소방목, 산화, 석류화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고, 얼굴에 장식하는 붉은 색을 통칭 연지(胭脂)라 부른다(Woo et al., 2013)(Figure 4).

『중국의관복식대사전』에 매화장은 위진남북조시기 남조의 송 무제의 딸 수양공주의 이마에 떨어진 꽃잎 모양을 모방해 만든 것이라 하였다. 병허각은 곤지의 유래를 매화장에서 비롯되어 신부 단장할 때 이마가운데 찍는 연지를 말하며 이마에 장식하는 이마화장이다. 피부화장의 기본이 되는 분과 이마화장, 볼 화장 등 활용 범위가 넓고, 붉은색은 혈색이 좋아 보여 가장 중요하게 여긴 색조화장이라고 할 수 있다(Figure 5, 6).

3) 원문사례 3 - 눈썹화장

Figure 7은 『규합총서』 선빈, 장비, 효하장, 단장 편에 기록

된 원문이다. 이는 눈썹화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위나라 궁인들이 긴 눈썹 그리기를 도화하야...”(Lee, 1809, p.266)

“...한무제, 궁인으로 흑여금 팔즈미를 지이고, 냥기체 취비를 고쳐 수미(愁眉)를 만들고, 탁문군이 미색이 원산 같으므로 사람이 본받아 원산미(遠山眉)를 지으며, 위 무제는 궁인으로 하야곰 청대미(靑黛眉)를 하고 속으로 년하야 가늘고 긴 거슬 아미장(蛾眉粧)이라 하더라. 오대 궁둥의 개원이 어매미와 쇼산미와 아악미와 슈쥬미와 월능미와 분초미와 함연미와 봉디원니 등의 천문슈미 있고, 당 명황이 화공으로 열눈썹을 그리니 일왈, 원왕미 우명 팔자미오....”(Lee, 1809, p.250)

『규합총서』에서는 시대별 눈썹의 종류와 명칭을 고증하여 소개하고 있다. 한나라 시대 팔자미는 八字형태의 눈썹으로 한무제가 궁녀들에게 팔자미를 그리도록 명했다 하고, 당대에 다시 유행하고 수양공주가 시집갈 때 팔자미를 하였다. 원앙미, 취미, 수미, 도훈미, 수주미 등은 약간의 차이점은 있었지만 팔자미와 비슷한 형태로 아래로 처지게 그린 눈썹의 형태로 모두 팔자형태의 눈썹을 지칭하던 단어로 볼 수 있다. 당시 화장을 분대화장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분대(粉黛)는 백분과 눈썹을 의미하는 것으로 눈썹이 화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대(黛)는 눈썹화장을 가리키는데, 눈썹은 얼굴의 형태나 인상을 좌우할 만큼 얼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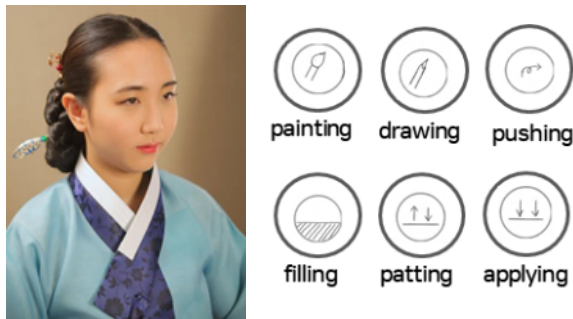


Figure 5. Color Make-up (taken by auth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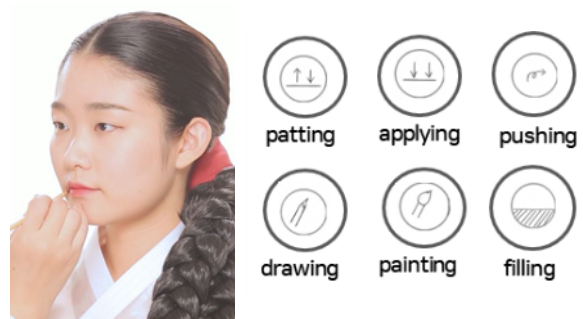


Figure 6. Lip Make-up (taken by auth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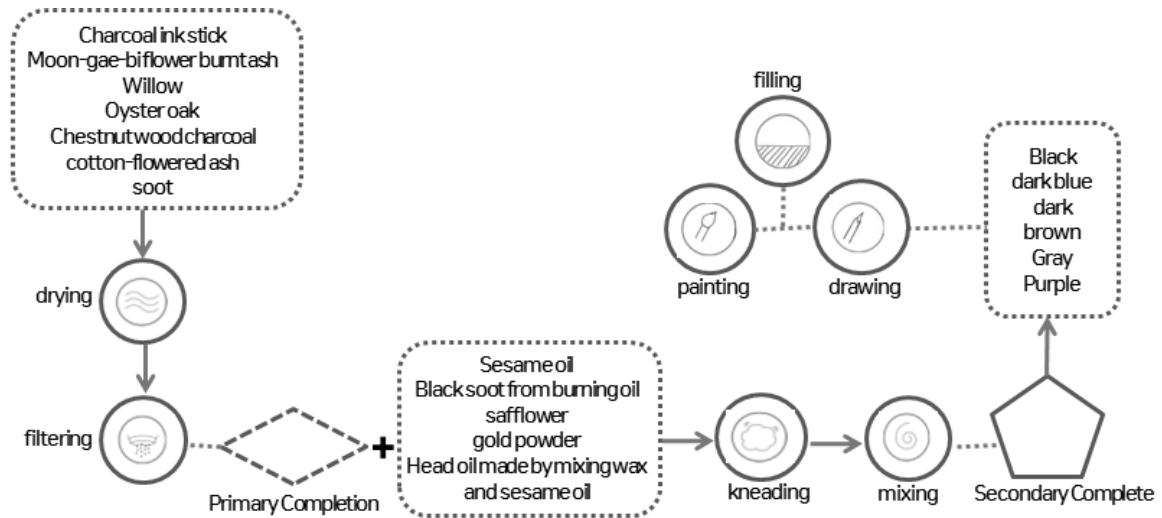


Figure 7. Making Eyebrow Makeup Materials (by auth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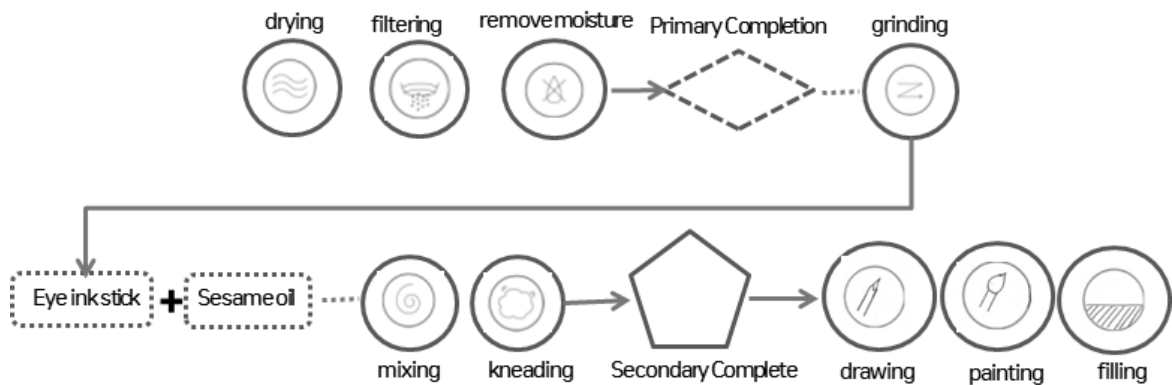


Figure 8. How to Make Eyebrow Make-up (by author)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시제와 유행에 따라 두께나 길이, 형태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Figure 8의 대(黛)는 눈썹을 그릴 때 사용하는 흑색 안료로 쪽에 석회수(石灰水) 등을 섞어서 만들며, 색은 흑색이고 형태는 묵과 같아 사용 시에는 물에 담가 사용하는데, 조선에서는 송연(松烟)·떡, 달개비 꽃잎 태운 재, 버드나무, 굴참나무, 밤나무의 목탄, 목화꽃 태운 재나 그을음 등을 참기름에 개어서 사용하거나 유연, 홍화, 금가루, 밀기름을 혼합하여 검정색, 검푸른색,

짙은 밤색, 회색, 자색 등 다양한 색의 대를 만들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는 단순한 비교가 아닌 정보 전달 측면의 흐름의 변화와 과정의 일환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시각화는 복잡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큰 흐름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흥미 있는 데이터의 심화된 탐색이 가능하다. 이러한 역사적 지식의 시각화 과정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사용과 문자, 그래픽, 사운드,

등 시각화의 상관관계 파악에 중심을 두고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고문헌 속 한국의 고전화장 시각언어를 통한 시각화 방안을 알아보고 새로운 개념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역사 고문헌 속 시각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시각화 작업은 정보디자인의 성격을 지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표로 하는 의미의 작업이다. 조선시대 규합총서의 붕임측을 중심으로 피부, 눈썹, 이마, 입술 화장 고찰 후 선행 재현기록, 재현 사례 및 국제표준 다이어그램 텍스트 언어표현을 응용하고 참고하여 도식화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 고문헌 속 시각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시각화 작업은 정보 디자인의 성격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의 전달방법 이었다. 둘째, 고문서의 시각언어의 경우 화장 소재와 행동으로 나눌 수 있고, 스토리텔링을 위한 소재와 재료의 시각화에 다이어그램이 적절하였다. 셋째, 고문헌 속 한국 고전화장의 행동의 경우는 다이어그램 보다는 이미지화의 시각화 방법이 적절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하고 평면적인 시간 나열 방식이 아닌 역사지식의 시각화 방식을 제안하였고, 가장 효과적인 역사 지식 시각화 방법을 찾고자 텍스트나 이미지 및 상관다이어그램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타임라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역사적 지식에 대한 시각화의 감상자로 하여금 통합적인 해석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억에서 중요하면서 선명한 기억으로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정보습득을 위해서는 이미지 및 언어화가 동시에 생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가상 공간속에서의 시공간 관계에 대한 해석과 객체로 연결된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한단계 더 나아가 확장하여 시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추후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 고전화장의 재현이 언어나 문자의 기호적 요소와 의미를 넘어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와 새로운 개념의 세계화가 필요하며 후행 연구가 진행되기 바란다.

References

- Ahn, HJ. (2007). *고구려 회화: 고대 한국 문화가 그림으로 되살아나다* [Koguryo painting: Ancient Korean culture revives into paintings]. Paju: Hyosung Publishing.
- Bae, MS. (2015). Visualization methods proposed of Korea traditional food recipes in old documents: Focusing on Umsikdimibang.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6(1), 251-267.
- Barn, KJ. (2018a). A study of classical makeup of the Korean age by using language visualization. *Journal of Fashion Business*, 22(1), 114-123. doi:10.12940/jfb.2018.22.1.114
- Barn, KJ. (2018b). Study of Sibmi-yo(十味謠 : 10 eyebrow poetry) image of Gyuhab-chongseo(閨閣叢書).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7), 719-728. doi:10.21742/ajmahs.2018.07.50
- Barn, KJ. (2019).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nformation design to Korean cultural heritage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1), 475-489. doi:10.35873/ajmahs.2019.9.11.044
- Chun, HS., & Woo, MO. (2012). Korea traditional cosmetic culture in the Yeoyong Guk Jeon, an anthropomorphosized Korean novel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e Society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5(1), 131-146.
- Jacobson, R. (2002). *Information design*. (DH. Jang, & MJ. Kim, Trans.). Seoul: Ahn Graphics. (Original work published 1999).
- Jung, DH. (2012). A study on visual perception expression utilized in advertising photograph: Focusing on Rudolf Arnheim's theory. *AURA*, 27, 99-111.
- Lee, B., & Jang, D. (2015). A study on visual expressive system in traditional Korean musical score Jeongganbo: Focusing on typographic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6(1), 433-449.
- Lee, CR., & Chang, DR. (2012). A study on the visual expressions of taste shown in visual culture contents: focused on comics and the movie <sikgae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8(1), 384-397.
- Lee, SJ. (2017). A study of Goguryeo mural tombs as the early Korean infographics: Focused on procession scene.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8(2), 419-431.

- Lee, B., (Ed.). (1809), *규합총서 봉임측* [GyuhabChongseo, 閨閣叢書 縫紉則], A kind of female life encyclopedia for a woman]. Seoul: Bo Jinjae.
- Lee, S., (Ed.). (1596), *본초강목* [Bonchogangmog, 本草綱目]. Seoul: Yeo Il.
- Min, EA. (2014).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for effective infographic design in science digital textbooks. *Journal of Digital Design*, 14(1), 407-416. doi:10.17280/jdd.2014.14.1.040
- Shin, JS. (2011). Translating for children based on the dual coding theory.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2(2), 109-128. doi:10.15749/jts.2011.12.2.005
- Song, Y., & Han, JY. (2020). An approach to the identity of traditional Chinese design: Centered on Tiangong Kaiwu.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6(3), 189-200.
- Woo, MO., Lee, AR., & Chun, HS. (2013). A study on Korean traditional skin beauty care in literature in the 'Gyuhapchongseo'.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6(1), 145-160.
- Yi, YH. (2005).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typography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A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15(7), 23-34.

Received (January 23, 2021)

Revised (February 13, 2021)

Accepted (February 22, 2021)